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생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조만형

유죄 추정의 올라미 걷어내라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채산당 입산부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경우 많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여론, 언론 보도, 경찰대응 등에서 얼마나 심한 실효 현상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히 매장시키는 형국인 셈이다. 일단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난 후, 우리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다음에 비로소 사건의 진위가 가려져 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렇게 한가롭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배려심'이라는데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이른바 '웃 보비 사건'과 '나라 종금 사건' 그리고 '현대비자금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이 세 번의 사건 때문에 '336일'을 구급당했던 A도 국회의원이 세 번째 무죄 확정판결 직후인 2005년 5월에 했던 말이 필자에게 오레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

경찰측이 사실관계는 여전히 조사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먼저, 사실의 확정 단계에서 온갖 구설이 난 무하여 사건의 실제 형성에 관한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지 말고 구체적인 사건을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즉 헌법은 제27조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제기가 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인정된다면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에게는 더욱더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세 번 죽임을 당했다. 검찰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나의 결백과 억울함을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금, 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상을 받아야 하나.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추궁을 해야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겠나. 이렇게 오레해오며 깃발처럼 버티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이러한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중세 시대 마녀사냥이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재판처럼 비합리적인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기소되어서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단계의 당사자는 유죄 확정받은 자에 버금가는 사회적 관심(?)을 어떠한 환경도 하지 못한 채로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 국민의 인권을 위한 일반원칙인 셈이다. 범죄혐의에 관하여 명백한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法廷)에 따라 무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열 사람의 죄지은 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적 명제를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남는 것... 다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모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서 사회통합의 역할을 키워야 하겠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3차 발사 앞둔 나로호 성공 준비에 만전을

오는 10월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둔 나로호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인공 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모두 외국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지난 2차례 발사에서 실패,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3차 발사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92년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인공 위성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모두 외국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지난 2차례 발사에서 실패,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3차 발사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나로호 발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발사 시기가 비 용에 얽매어 질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나로호 발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발사 시기가 비 용에 얽매어 질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이번에는 말로 완벽한 준비로 성공 발사를 일궈내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 무상보육사업 지자체에 떠넘겨서야

갓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이 출발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무상보육의 한 중심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부 정책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며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때문이다.

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형편상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막막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사회복지비 등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예산 중 복지비 부담률이 20%선까지 높아져 허리가 휘 지경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무상보육사업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시행에 들어간 무상보육이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고, '보육데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씩 지급된다. 재원은 정부가 3천69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체 무상보육 사업비 가운데 50%를 국고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예산으

로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무상보육이 파행을 빚게 되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전 협의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급부터라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국고 보조 확대 등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길 당부한다.

중고칼럼



윤빈호

'자기 비움'의 신비

신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모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고, 죽으시고 물하심으로서 '자기 비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자면 밀알 하나(예수님)가 죽어 많은 열매(모든 인간의 구원)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신비는 이렇게 자기를 비움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는 '케노시스(Kenosis) 즉,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

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에는 이런 '자기 비움'의 신비를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의 마더 테레사는 바로 이런 '자기 비움'을 실천했지요. 마더 테레사가 빈민굴에 들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때 그녀의 수종에는 단돈 5루피(약 120원)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나환자, 노숙자, 길에 버려진 핏덩이 등을 거두어 들

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대학생 글로벌 리포터'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광주 U대회만의 특색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기고

2015 광주 U대회 대동정신으로 준비하자



박득서

"28th Summer Universiad in 2015, to the city of Gwangju"(2015년 하계 U대회 개최지는 광주)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 광주는 U대회 개최를 위해 쏟은 열정과 합성을 성공적인 대회 준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선수촌 건립과 경기장 확충, 교통·숙박 대책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전세계 대학생들을 초대하기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광주 U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결코 눈앞의 소소한 문제들 갈등을 야기하거나, 대회 개최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는 대회성공 개최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U대회의 주역은 광주의 대학생들이지만, 그들이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과 기쁨을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광주는 지금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꿰어졌다. 광주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를 확정지음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됐다.

특히 광주는 이번 대회를 시민들의 자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경기장 등 건물신축을 최소화한 것이 그것이다. 대신 기존 시설과 전담 등 광주 인근 도시의 체육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한다.

전세계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인의 도시 광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대회 준비 단계부터 민·관·정이 소통하고 먼저 나서는 '以身作則(이신작적·출신수범)'의 정신이 절실하다.

농산물값 조금 올랐다고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가서야

요즘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물가 얘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킨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재질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아주 큰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에서 흔히 먹는 커피도 한잔에 4~5천원씩하고 비싼곳은 만원씩도 받는다. 만원이면 1000원짜리 호박이 10개다. 이 10개의 호박으로 호박볶음을 하면 4~6명의 한끼 식사 반찬이 가능하다.

원이지만 공산품과 도시 서비스업은 단박에 몇만 원, 몇십 만원씩 오른다. 즉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데 괜히 장바구니 물가라는 이유만으로 농산물만 물가상승 주범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나마 현재의 농산물값 상승은 이상이므로 작용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단순히 농산물값 등락폭만 가지고 물가인상을 부추킨다고 하면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린다.

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농가 소득은 감소해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언론사에서는 농산물값 보도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심본 이해해 주고 정부 역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요망 드린다.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